나주 홍어거리·여수 해물삼합거리 남도 대표 음식거리로 조성한다

2024년까지 10억씩 투입…편의시설·주차장 확충 등 개선 사업

여수 해물삼합거리와 나주 홍어거리가 남도의 대표적인 음식거리로 조성된다.

전남도는 16일 여수 해물삼합거리와 나주 홍어거리를 '2023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은 관광산업 파급효과가 큰 남도음식을 지역 특성에 맞게 특화하고 음식관광 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6년부터 추진중이다.

현재 목포 평화광장 맛의 거리, 순천 웃장국밥, 광양 불고기,담양 창평국밥, 곡성 압록 참게·은어, 고흥 녹동장어, 보성 벌교꼬막, 장흥 키조개, 강진 병영돼지불고기·마량 미항횟집거리, 해남 닭코스, 무안 뻘낙지, 영광 법성포굴비, 장성 장어, 완도 전복, 신안 섬 뻘낙지 거리 등 15개 시·군 16개소가 조성된 상태다.

전남도는 '2023년 남도음식거리' 선정 지역에 오는 2024년까지 개소당 10억원(도비 5억, 시·군비 5억)을 투입해 음식거리 상징물, 편의시설 확충, 간판 개선, 보행로·주차장 확보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수 해물삼합거리는 해양공원 일대 62개소가 영업중으로, 여수지역에서 나오는 다양한 해산물 요리를 즐기면서 돌산대교의 야경 등 여수 밤바다를 볼 수 있다.

오동도, 돌산공원, 진남관, 이순신광장, 여수세계박람회장 등 여수의 대표 관광지와 접근성이 우수해 관광자원과 연계한 음식관광 경쟁력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나주 홍어거리는 음식점 7개소,판매점 30개소가 영업중이며 인근에 근대문화유산인 영산포 등대, 일본인 거주가옥, 동양척식주식회사 문서고, 영산강 자전거길, 황포돛배 선착장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영산강 통합하천개발사업과 연계한 음식거리 조성사업, 지역 음식협회 중심의 강한 자생력 등 지자체 참여 의지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하늘 아래 신안 소금을 만나다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하늘 아래 다양한 소금과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린 '2023년 소금박람회' 전시장에 외국인 관람객 및 관계자들이 신안 소금을 들어 보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제공〉

광주 10가구 중 4가구 '나 혼자 산다'

연 1만가구씩 늘며 지난해 26만…"데이터 기반 맞춤 정책 수립"

신설 데이터분석팀 분석

광주 1인 가구가 전체의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30대 1인 가구는 서남동·충장동·동명동·지산1동 등 4개 동에 다수 거주하는 등 충장로 일대 옛 도심은 다시 젊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광주시가 공개한 생애주기별 1인 가구 분포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광주시 1인 가구는 26만여 가구로 전체 가구(65만 가구)의 40.7%를 차지했다. 1인 가구 수는 2017년 20만 가구, 2018년 21만 가구, 2019년 22만 가구, 2020년 24만 가구, 2021년 25만 가구, 2022년 말 26만 가구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 수 비율도 2017년 33%, 2018년 35%, 2019년 36%, 2020년 38%, 2021년 39%, 2022년 4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이 13만4000 가구(50.7%), 여성이 13만 가구(49.3%)로 남성 1인 가구 수가 근소한 차이로 많았다.

1인 가구를 연령별·행정동별로 그룹화하는 군집분석 결과, 모든 연령의 1인 가구는 용봉동, 수완동, 첨단2동 등 14개 동에 다수 거주했다.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20·30대는 서남동, 충장동 등 4개 동에, 40·50대는 비아동, 신용동 등 34개 동에, 60대 이상은 본량동, 동곡동 등 45개 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분석은 주어진 데이터값을 고려해 유사한 개체(값)끼리 묶는 분석 방식이다.

이번 1인 가구 분석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자료와 광주시 1인 가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별·성별·연령별로 분석, 생애주기별(청년, 장년, 노년) 1인 가구 분포를 광주시 행정동 지도 위에 나타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광주시 1인 가구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분류된 결과로 가구 특성에 맞는 정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하반기 조직 개편 때 데이터 분석팀을 신설하고, 각 실·국에 데이터 지원인력을 배치하는 등 데이터 분석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올 연말에는 빅데이터분석활용센터도 개소할 예정이다.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데이터 분석이 시정 전반에 활용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책 결정이 돼야 한다"며 "변화하는 환경과 분석 수요 등을 민첩하게 파악해 과제를 발굴하고, 시정 전반에 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전남도, 매실 냉해 보험금 37억 지급

전남도가 올해 상반기 이상기온으로 저온피해를 입은 매실재배 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금 37억원을 지급하는 등 신속한 피해 복구지원에 나섰다.

전남에서는 지난 4월 9일까지 3일간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져 착과 불량 등의 생육 불량 피해가 발생했다. 시·군별 지급액은 광양 18억900만원, 순천 9억7800만원, 보성 4억600만원, 곡성 2억6553만원, 화순 1억1283만원, 고흥 7766만원 등이다.

지급 대상 면적은 광양 199ha, 순천 139ha, 곡성 47ha, 보성 17ha, 화순 16ha, 고흥 9ha 구례 3ha 등 전체 438ha 규모다. 광양의 한 매실 재배농가는 농가 자부담 22만5000원으로 보험에 가입해 36배 많은 820만원의 재해보험금을 받았다. 이번에 지급하지 않은 배와 사과 등 일부 품목은 농가별 지급액 산출을 통해 9월에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부터 농가 자부담을 20%에서 10%로 낮췄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 늘린다

할인·수도권 직거래장터 등

전남도가 최근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인한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온·오프라인 할인행사 ▲수도권 등 직거래장터 개최 ▲수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추진 ▲박람회·전시회에서 홍보·판매관 운영 등 지난해 대비 수산물 판촉행사를 2배 이상 확대키로 했다.

대형 온·오프라인 대형 유통업체인 쿠팡, 카카오메이커스, GS, 남도장터 등과 연계해 전남 수산물 판매 행사를 추진, 합리적 가격으로 전남의 수산물을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 경기, 광주 등 대도시 지역에서 전남 바다에서 생산된 전남 수산물에 대한 대대적인 판촉전도 진행한다.

국제 수산엑스포, 수산양식박람회 등 전국 박람회나 전시회에 전남 수산물 홍보관과 판매장을 운영하는 한편, 방송 및 수도권 지하철역 등의 전남 수산물 홍보 방침도 마련했다.

또 지역 취약계층 2000여 가구에 대한 수산물 꾸러미 지원 정책도 추진한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전남도, 시·군,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추석 선물 사주기 운동을 진행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추석맞이 수산물 기획전 특판행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산물 소비 감소로 어려운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 추진에 온힘을 쏟겠다"며 "온·오프라인 수산물 할인행사, 대도시 직거래 장터 등 신선하고 건강한 전남 수산물 판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9월 서부권 일자리 박람회 참여기업 모집

전남도가 오는 9월 22일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2023 전남 서부권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대상 직종은 사무직, 관리직, 생산직, 서비스직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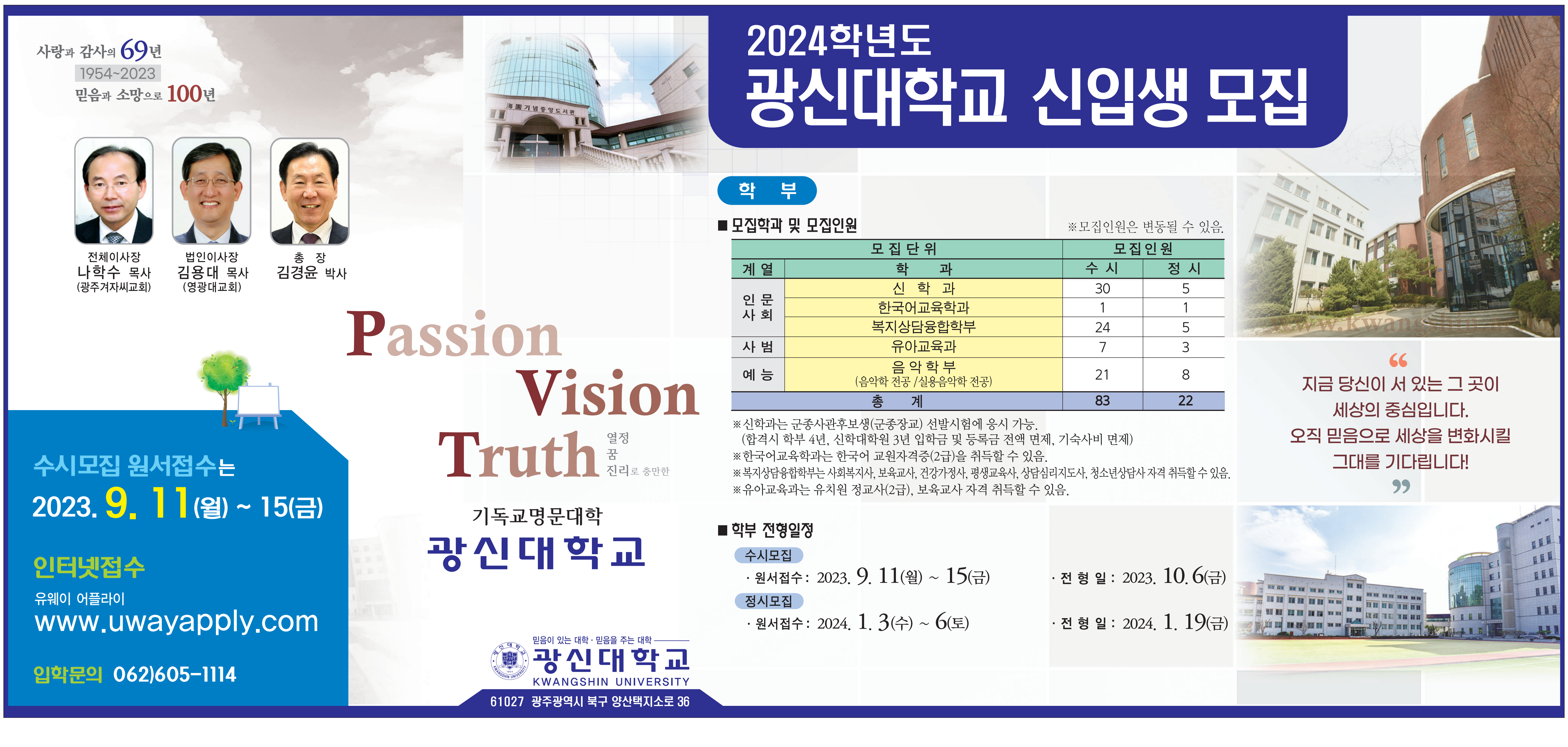
무안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광군과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전남테크노파크, 한전KDN, 한국산업단지공단대불지사, 목포고용노동지청 등과 함께 하는 이번 박람회는 기업체-구직자 간 인력수급 불일치 해결과 취업 기회 확대의 장이 될 전망이다.

박람회 참여 기업에는 인재채용 및 면접 부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기업홍보와 함께 원활한 구인·구직 매칭을 위한 현장 채용면접 기회가 주어진다.

또 일자리정책 홍보관과 구인·구직 매칭지원을 위한 현장매칭관, 이력서 사진 촬영, 힐링 상담 테라피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운영해 구직자의 취업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참여 기업 1차 모집은 오는 25일까지며 최종 모집은 31일 마감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모집단위		모집인원	
계열	학과	수시	정시
인문사회	신학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7	3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계		83	22